

#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김 성 한\*\*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

**주요어** 성매매, 성범죄, 성욕, 여성, 포르노그래피, 해악

**요약문**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는 여러 성 문제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다. 국내에서는 성매매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한 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포르노그래피 또한 제작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보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함에 반해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양자에 대한 반대 논변들을 검토해 볼 경우 과연 포르노가 성매매에 비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성매매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함에 반해 포르노는 그렇지 않은 등 실제로 성매매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그리고 여성 일반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나누어서 각각에 관련된 논변들을 비교·검토해 볼 경우 포르노가 성매매 못지않은, 나아가 그 이상의 해악을 미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포르노그래피를 흔히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재고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혹자는 포르노와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포르노 또한 일종의 성매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양자는 다르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아마도 성 문제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들라 하면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는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이기에 논의거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동성에 또한 최근 들어 별다른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는 논란거리들이 적지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모두 법적 규제의 대상들이다.

이 중에서 성매매는 국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는 훨씬 약한 편이다.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모두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됨에 반해, 포르노는 그 노골성이나 주제 등에 따라 훨씬 융통성이 있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를 보는 것은 묵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르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또한 성매매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야동을 본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하는 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포르노를 보는 것은 비교적 커다란 문제가 아닌 작은 일탈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와 비교해 포르노그래피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 반대 논변을 살펴보면 언뜻 보았을 때와 달리 포르노그래피 또한 성매매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 반대 논변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자 모두에 공통되는 일부 반대 논변을 선택하여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sup>1)</sup> 이를 통해 우리는 포르노가 성매매 못지않은 문제점

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2. 포르노와 성매매를 정의하는 데에서의 난점

법적 처벌 여부를 가늠할 때 애매한 경우가 없지 않고, 자발적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지만 성매매가 의미하는 바는 비교적 분명하다.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몇 가지 정의 중에서 “비교적 상대를 가리지 않으면서, 돈을 받고 직접적인 성적 접근을 승인하는 관행”<sup>2)</sup>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여도 특별하게 성매매를 논의하는 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에 반해 포르노는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 이유는 포르노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에 주관적인 판단에 관한 단어가 포함될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바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르노는 어떤 정의를 채택해도 반론이나 의문을 피해 가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이스턴(S. Easton)은 포르노를 “여성을 시각적으로, 혹은 언어를 통해 비속화하는, 노골적인 성적인 자료들”<sup>3)</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포르노가 ‘여성에게 해악’을 야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정의로, 이 경우 남성만이 나오는 성적인 자료는 포르노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비속화’라는 단어 자체가 주관적 관점이 포함된

- 
- 1) 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는 윤리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로, 이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 글에서는 양자에 대한 반대 논변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비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반대 논변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일일이 검토해 가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짧은 지면에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반대 논변들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2) I. 프리모라츠, 「성매매」, 『성과 윤리』, 우도 슈클렌크 외 저, 김성한 역, 아카넷, 2010, 68쪽.
  - 3) S. 이스턴, 「포르노그래피」, 『성과 윤리』, 206쪽.

단어이다 보니 그 기준도 애매할 수 있다.

문제는 비단 정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적절한 논의를 위해서는 포르노그래피의 유형을 구분해야 하기도 하는데, 마치 안락사를 논의할 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듯이, 포르노그래피 또한 적절히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할 경우 안락사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논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만 주고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포르노는 표현이나 노출의 노골성을 기준으로 소프트 코어와 하드 코어 등으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루는 내용이 비도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방식의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의식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포르노를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 표현물”<sup>4)</sup>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골적’,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러한 정의는 포르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포르노를 비판할 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며, 필자가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 또한 포르노 ‘반대’ 논변임을 감안했을 때, 포르노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특별히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 3. 성매매와 포르노의 차이와 문제점

언뜻 보았을 때 성매매와 포르노는 분명 다르다. 먼저 성매매는 성 구

---

4) 성동규·김왕석,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보』 42(2), 1997, 230쪽.

매자와 성 판매자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짐에 반해, 포르노는 이와 같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포르노는 대체로 시청각적인 자극을 충족시켜 줄 뿐, 서비스 수요자와 연기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성매매와 포르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실제 관계가 이루어짐에 반해, 포르노는 배우가 매체를 통해 연기를 보여줄 따름이다. 물론 윤자영이 언급하고 있듯이 연기와 실제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sup>5)</sup> 어찌되었건 포르노는 각본에 의해 짜인 연기나 자세를 보여준다.

이 밖에 성매매의 경우 성 서비스<sup>6)</sup>에 대한 대가로 성 구매자가 직접 돈을 지불함에 반해, 포르노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포르노는 수요자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포르노 배우는 포르노 출연을 통해 수입을 얻으며, 이러한 수입은 포르노 수요자가 포르노를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매매와 포르노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르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찬반 논의 역시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성매매와 포르노는 유사점이 적지 않고, 이에 따라 장단점으로 지적되는 논의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먼저 이들을 필요악이라는 측면에서 옹호하는 논의로는 ①성에 대한 욕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②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③성범죄율을 낮춘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양자가 윤리적으로 옳은 관행은 아니지

5) 윤자영, 「일상생활 속의 포르노그래피 정치학」,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120쪽.

6) 성 서비스를 포함해서 글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적절치 못한 어휘 선택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만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이다. 한편 ①성매매와 포르노를 추구하는 것이 권리이자 자유라는 입장은 필요악을 넘어서 포르노와 성매매에 윤리적 정당성까지 부여하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적 쾌락의 추구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7)</sup> 반면 ①성이 상품화되고 인간의 몸이 성욕의 수단이 된다, ②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③성범죄율을 높인다, ④여성 일반을 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등은 양자 모두를 비판하는 주장들이다.

이 중에서 이 글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논의는 마지막으로 언급한 ①~④를 포함한 양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들의 경중을 가려 포르노와 성매매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매매에 비해 포르노가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필자는 관련 논의들을 검토해 볼 경우 그러한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 4. 포르노보다 성매매가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매매에 비해 포르노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로는 성매매가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해악(harm)<sup>8)</sup>을 가함에 반해, 포르노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피해를 야기한 사람은 성을 직접 구매한 사람이다. 반면 포르노의 경우는 이를 보는 사람이 직접 배우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에게 직접 해악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 없다. 연

7) 류지한, 『성윤리』, 울력, 2005, 57쪽.

8) 해악 또한 논란의 여지가 큰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를 대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정도로만 생각하기로 한다.

기자는 포르노를 보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악을 입게 된다. 이처럼 성매매는 성매매 종사자에게 직접 해악을 준다는 면에서 포르노를 보는 것과는 다르며, 이러한 측면에서 포르노를 보는 것에 비해 성매매가 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성 구매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성 구매자의 배우자나 애인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포르노에 비해 성매매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다. 실제로 배우자나 애인이 포르노를 보는 경우와 성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여성의 반응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남성 배우자나 애인이 포르노를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이 추잡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여성 배우자나 애인이 엄청난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남성이 포르노를 볼 경우 여성 배우자나 애인은 남성이 거기에 나오는 배우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의 매력에 흠뻑 빠져 들어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 주인공과 직접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설령 포르노 배우의 매력에 빠진다고 해도 여성은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그 배우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여성은 포르노를 보는 배우자나 애인에게 짜증이 날 지라도,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성 구매<sup>9)</sup>는 이와 상당히 다른데, 먼저 여성 배우자나 애인은 성을 구매한 남성이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몫을 엉뚱한 여성에게 투자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신에게 헌신해도 모자란데, 적지 않은 금액을 성매매에 쓴다는 사실은 여성 배우자나 애인에게 극심한 불쾌함을 야기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 종사자와의 관계가 한 번에 머무는

9) 이 글에서의 성 구매란 성매매를 통해 성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남성이 성매매 종사자와 깊은 관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포르노에 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아무리 남성이 포르노 배우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는 궁극적으로 현실이 아니다. 이에 반해 성매매 종사자와의 관계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로,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포르노를 보는 경우와는 달리 성매매 종사자와의 관계는 기존의 부부 관계나 애인 관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때문에 여성의 경계심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셋째, 포르노와 달리 성 구매는 가정 또는 배우자나 애인에 대한 남성의 헌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직접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여성의 입장에 보았을 때 남성이 기회가 되면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외도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포르노를 보는 경우에 비해 훨씬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럼에도 성을 구매한다는 사실은 남성의 도덕성까지도 의심하게 만든다.

넷째, 배우자의 성매매는 성병을 의심케 하는데, 이는 포르노를 보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르노를 수없이 본다고 성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성병이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 반면 성매매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성병을 방지할 방법이 없던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다루는 포르노는 남녀가 함께 나오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부부 관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포르노는 여성의 반감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된다.<sup>10)</sup>

---

10) 송관재, 『성 차이의 심리』, 선학사, 2003, 145쪽.

결론적으로 포르노에 비해 성매매가 훨씬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성매매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해악을 야기하며, 여성 배우자나 애인의 불쾌감과 충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sup>11)</sup> 하지만 배우자나 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외의 다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경우 포르노는 성매매 못지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측면은 포르노가 성매매에 비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 5. 포르노와 성매매 반대 논의 비교

포르노에 비해 성매매가 더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것이 직접 종사자에게 피해를 주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남성의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간접적으로 해악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르노와 성매매의 해악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여성 일반에 미치는 해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는 해악부터 살펴보자.

### 1)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는 해악

(1) 서비스 제공자의 성이 상품화되고 성욕의 수단이 되면서 인격 무시가 이루어진다

성의 상품화, 인간의 육체가 성적 욕구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은 성매매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공통된 비판으로, 가장 흔히 제기되는 비판

---

11) 이 글은 남성이 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성이 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앞의 이스턴(S. Easton)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는 대체로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고 수단화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여성이 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성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중의 하나다.<sup>12)</sup> 이러한 비판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단지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명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길 바라지 않으며,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받길 원한다. 비판자들에 따르면 포르노나 성매매는 바로 이와 같은 정언명법을 거스른다. 다시 말해 양자 모두 서비스 제공자가 사람들의 성적 욕구의 수단이 될 뿐 결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둘 중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쪽일까?

양자를 비교해 보기에 앞서 왜 하필이면 남성이 유독 포르노에 나오는 배우나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욕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지부터 따져 보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논란 또한 적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남성의 성 자극 기작을 통해 이를 설명해 보자. 남성이 성적 자극을 느끼는 경우는 ①직접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때, 혹은 ②성관계 장면, 나신 또는 노출이 심한 여성을 보게 되었을 때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은 흔히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성적인 자극을 받는다고 해서 자극의 대상을 자동적으로 무시하거나 성욕의 수단으로만 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성은 여성과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시각을 통해 성적인 자극을 받을 때 여성의 인격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대개 남성은 인격체로서의 상대에게 성적인 자극을 받고, 또한 관계를 맺는다. 이 때 상대는 남성의 성적 욕구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되는데, 이렇게 보자면 단순히 ①과 ②의 상황에서 여성을 오직 성욕의 수단으로만 대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①과 ②의 상황에서 성 자극이 촉발되는 것만큼은 분명 사실

12) 류지한, 『성윤리』, 울력, 2005, 105-106쪽; 오은경,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성과 사랑의 시대』, 학지사, 2004, 221쪽; I. 프리모라츠, 「성매매」, 『성과 윤리』, 81쪽 등을 볼 것.

인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 또는 그러한 여성의 나신이나 노출이 남성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성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남성의 이러한 성 반응이 사고에 우선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여성은 일차적으로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한다. “가슴은 사유가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파스칼(B. Pascal)의 말처럼 이는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이다. 이 때 만약 상대가 애인이나 배우자라면 인격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성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인격에 대한 관심이 배제된 채 성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남성은 정자가 생산되어 시간이 흐르면 뇌로부터 배출 명령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욕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정자를 배출한다면 일시적으로 성욕을 느끼지 않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특히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를 경우 차츰 그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역치가 낮아져 심지어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많은 남성이 수음을 빈번하게 하는 이유는 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sup>13)</sup>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갖춘 남성이 ①과 ②의 상황에 처할 경우 그 상황은 성욕 해소를 위한 매우 강한 자극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때 상대가 누구인지는 부차적인 데에 머물 수가 있다. 이처럼 생리 구조상 남성은 ①과 ②의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성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대상이 배우자나 애인일 경우는 상대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되지만,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상대가 성적인 욕구 해소의 수단 쪽에 가까운 대상으로 간주된다.

13) 이인식, 『성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246쪽.

남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 반응을 일으킨다면 남성이 여성을 오직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태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은 성매매와 포르노를 접하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포르노를 보거나 성 구매를 할 때 남성은 ①과 ②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때 접하게 되는 여성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포르노에 출연하는 여성이나 성매매 업소에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은 오직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만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매매와 포르노 중에서 성욕의 수단이 되고 상품화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게 되는 해악은 어느 쪽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언뜻 보자면 성매매 종사자가 더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 성매매 종사자는 성매매 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며, 노골적인 인격 무시가 이루어진다고 일컬어진다.<sup>14)</sup> 이 때 성매매 종사자는 사실상 성폭행을 당할 때와 다를 바 없는 굴욕을 경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sup>15)</sup> 이에 반해 포르노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그저 연기를 할 따름이며, 이를 보는 사람은 그저 관객일 뿐 배우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매매는 포르노를 보는 것에 비해 서비스 종사자에게 직접적이면서 더 큰 해악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포르노 제작 현장에서도 성매매 현장에서와 다를 바 없는 성의 상품화를 위한 노골적인 인격 무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각본에 따라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포르노 배우가 성매매에 비해 더 심한 몸에 대한 통제권 상실과 그에 따른 인격 무시를 경험할 수도 있다.<sup>16)</sup> 다시 말해 포르노 제작 과정이 맥किन(C. MacKinnon)이 말하듯이

14)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186-7쪽.

15) 오은경,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성과 사랑의 시대』, 학지사, 2004, 217쪽.

“강요된 성교의 한 형태”일 수 있는 것이다.<sup>17)</sup>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성매매와 달리 포르노에 출연하는 배우의 성(性)은 이론상 시공을 초월해서 상품화될 수 있다. 일단 포르노가 제작되면 자료가 계속 남아 있는 한 포르노 배우의 성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영구적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포르노 배우가 느끼게 될 정신적 부담은 적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2)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한다

포르노 출연자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르노 배우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에게 매우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sup>18)</sup> 실제로 성매매처럼 ‘여러 사람과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관계를 맺는 것’과 ‘한사람과, 다른 사람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비교할 경우 성매매가 여성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공공장소에서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포르노에 계속 출연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포르노 배우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상대와도 연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자면 포르노 배우의 상황이 성매매 종사자 이상으로 열악할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6) 이노우에 세쓰코, 『15조원의 육체 산업』, 임경화 역, 씨네 북스, 2002, 165쪽.

17) C. MacKinnon, “Not a Moral Issue” in *Yale Law & Policy Review* 2(2), 1984, 325쪽.

18) 조정옥, 『성의 눈으로 철학 보기, 철학의 눈으로 성 보기』, 서광사, 2004, 194쪽.

(3) 다양한 장르의 장면과 주제를 다루게 될 수 있다

포르노에 출연하는 연기자는 단순히 공개된 자리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포르노가 평범한 성관계 장면만을 연기하지 않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르노는 장르가 다양한데, 제작자들이 소위 성적인 환타지를 충족시켜 준다는 구실로 연기자가 감당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장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설령 연기라 할지라도 포르노 배우가 이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할 수 있다.<sup>19)</sup>

성매매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 구매자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포르노에서 간혹 보게 되는 비정상적인 장면들을 성매매 현장에서 그 이상으로 제공해야 할 것 같지는 않으며, 설령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훨씬 낮을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포르노 출연자가 느낄 정신적인 부담과 고통은 성매매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sup>20)</sup>

(4)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는 얼굴이 알려지긴 해도 널리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종사자가 접하게 되는 사람은 비교적 제한적인 수이며, 이 사람들이 모두 성매매 종사자의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도 아니다. 때

19) 이노우에 세쓰코, 『15조원의 육체 산업』, 166쪽.

20) 어쩌면 어느 쪽이 더 문제인지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학대 장면을 찍는 포르노와 상식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성매매(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를 비교할 경우는 전자가,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성매매가 더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은 자신이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할 경우 성매매를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과거를 굳이 노출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포르노 출연은 이처럼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남아 있는 이상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자신이 아무리 포르노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포르노에 출연하는 배우의 얼굴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으며, 만약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자료는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포르노 배우는 은밀한 활동이 불가능하며, 한 번이라도 포르노에 출연할 경우에는 영원히 그 흔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포르노 출연자는 성매매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면 포르노 배우가 느끼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성매매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포르노 배우는 노골적인 인격 무시 외에 출연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로 인해 성매매 종사자와 다를 바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 2)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번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자. 이하는 성매매에 비해 포르노를 보는 사람에게 더 많은 해악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들이다.

### (1)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비디오가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잡지나 서적

등의 매체를 통해 포르노를 접했다. 이로 인해 표현이나 주제 등이 비교적 제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 또한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르노는 주제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사람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21)</sup> 그런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대상, 그리고 시기 등에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매매에 비해 포르노가 수요자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한다. 특히 문제는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아동들까지도 포르노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성매매에 비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동이 성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며, 특히 아동이 성을 구매하려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아동 또한 성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은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성 구매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성매매를 할 만큼 돈을 가지고 있기도 힘들다. 또한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갈 정도의 욕구를 갖지도 않고, 성매매 업소에서도 아동이 성을 구매하려 왔다고 했을 경우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동이 성을 구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그리 잘못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성 구매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동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은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오늘날 포르노는 인터넷에 들어가 몇 번 클릭만 해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콘텐츠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달된다. 아무리 차단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회해서 포르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포르노를 접할 수 있다. 이처럼 포르노는 정보 제공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닌 매체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심지어

21) 김혜순, 가까워진 포르노,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43쪽.

아동들마저도 원하면 얼마든지 포르노를 만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아동들이 성년으로서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들은 성에 관한 분별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포르노의 다양한 주제와 영역들을 여과 없이 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아동들에게 걸러지지 않고 포르노들이 전달될 경우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심각할 수 있다.<sup>22)</sup> 이는 성매매가 갖지 못한 해악이라 할 것이다.

(2)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성매매에 비해 높다

포르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포르노는 노출의 강도나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포르노를 보는 사람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성인 남성들, 특히 성경험이 없고,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남성들이 포르노를 통해 성 지식이 아닌 성 지식을 얻게 될 수 있는데, 그 폐해는 적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때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내용을 다루는 포르노를 접하게 될 경우 성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남성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포르노와 달리 성매매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다. 이는 현실 속에서의 성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의 호불호가 어느 정도 드러나며, 따라서 포르노에 비해 성과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 성 구매자는 적어도 성폭행을 당하면서 즐거워할 여성이 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으며, 설령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종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 구매자는 최소한 얼굴 표정이나

22) 차남현 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별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 갈등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6(4), 2005, 116쪽.

말 등을 통해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적어도 성매매가 상대의 호불호에 관한 왜곡된 지식을 전달할 가능성은 포르노에 비해 적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성매매 자체가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포르노도 다를 바 없다. 포르노 배우들은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을 뿐, 그들 또한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있으며, 비록 상대 배우에게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성에 관한 연기를 통해 수입을 얻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포르노도 성매매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성매매에 비해 크다

지금까지 성범죄와 포르노, 성범죄와 성매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연구자의 편견을 반영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듯이 보이는 것들도 없지 않다.<sup>23)</sup> 때문에 사실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들어 한쪽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찌되었건 성범죄와 포르노, 그리고 성매매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르노나 성매매가 남성의 성욕을 희석시켜 성범죄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나 포르노가 성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남성의 이와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범죄가 성욕 해소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sup>24)</sup> 남성의 권력에 대한 관심, 남성 일반이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

23) 조종읍, 『포르노의 이해 : 포르노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 『한국성폭력 상담소』, 2001, 2쪽.

24) 윤자영, 『일상 생활 속의 포르노그래피 정치학』,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121-2쪽;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동

는 욕구,<sup>25)</sup> 여성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등이 성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성범죄는 남성의 성욕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려는 권력욕이나 지배욕의 영향을 받으며, 남성이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성을 성욕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다.

이들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실에 가까운 것은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일지 모르며, 실제로 양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양쪽에서 거론하는 요인은 모두 성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26)</sup> 여기에서는 논의의 진행을 위해 포르노와 성매매가 성범죄율을 높인다는 입장을 일단 받아들이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성범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

포르노가 그렇다고 생각할 근거를 나열해 보자. 성범죄자가 체포되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 흔히 성범죄의 원인으로 포르노가 거론되지 성매매가 지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sup>27)</sup> 이는 성매매보다는 포르노가 성범죄와 더욱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포르노가 성매매에 비해 성범죄와 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성매매가 특별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가 평소에 성매매업소를 출입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령 범죄자가 성매매업소를

넉, 179-180쪽.

25) S. 핑커, 『빈 서판』, 김현영 역, 사이언스북스, 2004, 596쪽.

26)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2006, 457-461쪽.

27) 예컨대 조사 결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95.56%가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성폭력과 음란물을 본 경험이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전석호, 『포르노, 섹스 그리고 미디어』, 가산출판사, 1999, 80쪽.

자주 들락거렸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는 이를 밝힐 이유가 없고, 밝혀서도 안 된다. 이를 밝힐 경우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불필요하게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포르노는 비록 제작은 불법이지만 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이를 지목하는 것이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할 경우 책임을 자신보다 포르노에 전가함으로써 자아가 받는 상처를 줄일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 때문에 성범죄자가 성매매와 포르노 모두를 즐긴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보다는 포르노가 자신의 성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범죄자의 가택을 수색했을 때 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은 성매매에 비해 포르노와 성 범죄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 또한 그렇다는 증거로 활용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그저 성 구매가 포르노를 접하는 것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경력은 성 범죄자가 직접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에 반해 포르노물은 컴퓨터 검색 경력 등만 확인해 봐도 얼마든지 그 증거가 확보된다. 이처럼 양자는 증거 확보의 용이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포르노나 포르노를 본 경력이 성범죄자의 컴퓨터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포르노가 성범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짓긴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성매매에 비해 포르노가 성범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포르노가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르노는 주제에 제한이 없고, 또한 허구이다 보니 성관계 상황을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보는 사람들, 특히 성교육이나 성경험이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허구와 실재를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성이 현실에서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그렇지 않게 묘사할 경

우 허구와 실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혐오할 상황을 즐겨워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성폭행, 가학행위 등을 당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는 장면은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생각이 성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성매매는 어찌되었건 실제 관계인지라 포르노에 비해 성문제에 대한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때문에 오인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할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

설령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이고, 때문에 성 구매를 하는 것은 이미 100%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 구매와 성 범죄는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자가 후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 포르노를 보는 것은 성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는 정도의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쪽이 성범죄와의 관련성이 더 큰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는 논점을 일탈한 대응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포르노와 성매매 경험이 ‘또 다른’ 성 범죄에 미칠 영향이지 포르노와 성매매가 범죄인지의 여부나 어떤 것이 더욱 심각한 범죄인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미치는 성매매와 포르노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체로서의 성범죄와의 관련성은 아무래도 포르노가 더 크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많은 쪽은 포르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미치는 성매매의 영향력이 포르노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영향력의 총합계가 전체로서의 성범죄에 미치는 포르노의 영향력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포르노가 성매매에 비해 성범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특성상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포르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여성 일반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포르노와 성매매는 여성 일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은 포르노를 보거나 성을 구매할 경우 여성 일반을 보는 남성들의 시선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겪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할 때 그러한 시선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여성들에게 해악을 미치게 된다는 비판이다. 여성을 보는 시각에서의 부정적인 변화는 여성을 쉽게 생각함으로써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크고 작은 성범죄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실제로 여성을 단순히 성욕 해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이러한 태도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sup>28)</sup>

여성을 보는 남성의 시각 변화가 여성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는 포르노나 성매매를 경험할 때의 여성을 대하는 남성의 태도가 여성 일반을 대할 때에도 그대로 확대 적용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에게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은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지 결코 어떤 상황에서 취했던 태도를 무차별적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갑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을 일반화하여 어떤 경우에도 갑의 입장을 취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는 상황에 따라 갑의 입장을 취하기도, 을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이나 포르노에 나오는 여성을 보면서 취했던 태도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여성을 대할 때 그대로 견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애인, 여성 상사, 여성 부하 직원, 고객을 대할 때의 태도는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포르노 허용과 강간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

---

28) R. Bergen, "Exploring the connection between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15, 2000, p.227이하.

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포르노를 허용하는 것과 강간 발생률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한 예로 미국과 영국은 대동소이한 포르노 규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강간발생률은 영국의 12배에 이른다.<sup>29)</sup> 이러한 사실은 포르노를 보는 것과 남성이 여성 일반을 대할 때의 태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

하지만 이와 대립되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데, 이와 다른 연구인 메시 위원회(Messe Commission)의 연구는 포르노가 그와 같은 시각을 갖게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설득력 있는 입장이 어떤 것이건, 포르노나 성매매를 접했을 때 상대나 배우를 접할 때의 경험을 일반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하여 이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이들을 경험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크건 작건 포르노와 성매매가 여성 일반을 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여성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일단 포르노와 성매매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포르노와 성매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쪽은 어느 쪽일까?

일부 비판자들에 따르면 성매매와 포르노는 여성을 지배하려는 남성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sup>30)</sup>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포르노에 비해 성매매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을 구매할 때 남성은 이러한 욕구를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특성상 포르노를 보는 남성은 매체에서의 배우에게 지배 욕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때문에 성매매에 비해 포르노가 여성 일반에

29) 우지숙,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대한 담론을 통해 본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문제』, 『한국언론학보』 44(1), 1999, 268쪽.

30) 오은경,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성과 사랑의 시대』, 학지사, 2004, 212쪽.

대한 지배욕을 확대·강화하는 연습을 하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배우에게 직접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도 남성의 지배욕에 영향을 주는 주제나 내용 또는 장면을 긍정적으로 다룰 경우 포르노 또한 성매매 못지않게 여성 일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강화하는 연습의 장이 될 수 있다. 물론 포르노를 보는 사람이 포르노에 나오는 장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포르노를 접하는 사람들이 포르노에서의 행동이나 장면을 흉내 내고 싶어 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욕구가 만들어진다면 포르노 또한 남성의 지배욕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이 여성 일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여성들에게 해악을 미치는 데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포르노 또한 성매매 못지않게 여성 일반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를 비판하는 공통의 논의들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언뜻 생각해 볼 때와는 달리 포르노는 성매매 못지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만약 포르노와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 글에서의 논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는 단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르노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와 다른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어떤 입장을 취하건 그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에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류지한, 『성윤리』, 서울: 울력, 2005.
- 송관재, 『성 차이의 심리』, 서울: 선학사, 2003.
-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2006.
- 이인식, 『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8.
- 전석호, 『포르노, 섹스 그리고 미디어』, 서울: 가산출판사, 1999.
- 조정옥, 『성의 눈으로 철학 보기, 철학의 눈으로 성 보기』, 서울: 서광사, 2004.
- 김혜순, 「가까워진 포르노,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 성동규·김왕석,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보』, 42(2), 1997.
- 오은경,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성과 사랑의 시대』, 서울: 학지사, 2004.
- 우지숙,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대한 담론을 통해 본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문제」, 『한국언론학보』, 44(1), 1999.
-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동녘, 1999.
- 윤자영, 「일상 생활 속의 포르노그래피 정치학」,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동녘, 1999.
- 조종읍, 「포르노의 이해 : 포르노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 차남현 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별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 갈등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6(4), 2005.
- 이노우에 세쓰코, 『15조원의 육체 산업』, 임경화 역, 서울: 씨네 북스, 2002.
- 이스턴, 수잔, 「포르노그래피」, 『성과 윤리』, 김성한 역, 서울: 아카넷, 2010.
- 프리모라츠, 이고르, 「성매매」, 『성과 윤리』, 김성한 역, 서울: 아카넷, 2010.

핑커, 스티븐, 『빈 서판』, 김현영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4.

Bergen, R., “Exploring the connection between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 in *Violence and Victims* 15, 2004.

Dworkin, A., “Against the Male Food” in Drucilla Cornell ed., *Feminism & Pornography*, Oxford Univ. Press, 2007.

MacKinnon, C., “Not a Moral Issue” in *Yale Law & Policy Review* 2(2), 1984.

##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Which One Needs to Be Concerned More Seriously?**

Kim, Sung-Han (Sookmyung Women's Univ.)

Both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are major objects of controversy among all other sex related issues. In Korea, prostitution is controlled under the special law against prostitution and production of pornography is also forbidden by law, whereas the exposure to pornography has been almost institutionalized. For this reason, although people consider prostitution as a serious crime, they hardly feel guilty about seeing pornography. However, when we review the opposite arguments on both sides, we can question whether pornography can be concerned less than prostitution. Prostitution actually does cause harm to others directly while pornography doesn't, and there exists more issues we can consider prostitution as a more serious crime but when we compare and review all objections to the criticism made against i) a person who provides a sexual service; ii) a person who accepts a sexual service; and iii) ordinary women respectively, we can recognize that pornography can even cause more harm than pro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consider our attitudes of taking pornography too lightly due to its easy accessibility.

**Key words:** Harm, Pornography, Prostitution, Sex Crime, Sexual desire,  
Women

철학탐구 제36집

김성한 e-mail: kishan@lycos.co.kr

투 고 일	2014년 10월 20일
심 사 일	2014년 10월 30일
게재확정	2014년 11월 14일